Part 5
국제 농업 정보

1.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행정 명령
2.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부과 대응으로 위협
3.EU, 2017년 식품 사기사건 크게 증가
4.일본,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 진행
5.일본, 2018년도 원유 생산 전망





국제 농업 정보 (2018. 4)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행정 명령

❍ 미국 대통령(Donald Trump)은 미국 농무부(USDA)에 무역전선에서 무역 영향으로부터 자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서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Robert Lighthizer)에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명령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보다 미국 농민들과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함.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복측면에서 추가 관세부과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안에서 적절한 지, 만약 적절하다면 어떤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을 명함.
- 농업부 장관에게는 미국의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하여 정부 내각의 다른 원조국들과 함께 미국 농민보호와 농업부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조사안을 언급하며 중국이 반복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함.
-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에서 상세히 기술된 해당 관행은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왔다고 언급하였음.

❍ 백악관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정책과 관행의 철폐를 위한 초기수단으로 금주 제안한 5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부과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공정하고 상호성 있는 자유무역 달성과 미국 기업들과 자국민들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지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 중임.
- 또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하며, 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 무역대표부(USTR) 입장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Robert Lighthizer)는 트럼프의 명령은 최근 중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여러 번 서약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적절한 대응은 중국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Robert Lighthizer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에 수십억 달러의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음을 지적하며, 그러한 대응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근로자와 농민,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함.

❍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 확인된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대응을 요청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제안된 모든 추가 관세는 2018년 4월 3일에 발표에서 제안된 관세와 유사한 공개 논평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의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경고

❍ 신화 통신사(The Xinhua News Agency)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트럼프가 1,000억 달러의 새로운 관세부과를 모색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중국은 미국의 무역 행위와 보호주의에 맞서 자국 이익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미국 농무부 장관에 시선 집중

❍ 미국 농무부 장관(Sonny Perdue)는 금주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주를 방문하며, 'Back to our roots' RV투어를 하였음.

❍ Sonny Perdue는 모든 정착지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 그는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나는 긴장 완화측면에서 그러한 노력에 대해 언급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 또한 우리는 중국이 무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농업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알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무부와 내각 인사들에게 미국 농민들과 목장주를 보호할 계획

을 세우도록 지시한 결과 Sonny Perdue의 투어는 켄터키 주에서 마무리되었음. 대통령 지시에 집중할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미국 농무부는 무역 긴장이 다시 상승할 조짐이 보일 때 그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함.

❑ 부정적인 초기 시장 반응

❍ 백악관의 발표 이후 야간세션(overnight session)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선물거래 commodity futures)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뉴스 발표 후에는 주식 선물(stock futures) 가격 또한 하락하였음.

- 아시아 시장은 닛케이지수가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5.)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 대응으로 위협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산 대두, 쇠고기 및 기타 농산물 수입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계획함.

-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행 변화를 위해 1,300여 개의 산업 기술, 운송 및 의료 상품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4월 3일 발표에 따른 것임.

❍ 또한 해당목록에는 착유기(milking machines), 가금류 부화기(poultry incubators), 초콜릿 제조장비(chocolate making equipment) 부품 등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음.

- 중국 상무부는 4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가 500억 달러에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워싱턴이 발표한 새로운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중국 제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

❍ 최근 보복조치로 대두와 함께 새로운 관세로 타격을 받을 기타제품에는 쇠고기, 밀, 옥수수주정박(DDGS), 면화, 사탕수수, 냉동 오렌지주스 등이 있음.

- 또한 해당 목록은 오프로드 자동차와 같은 다수의 비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제품에 추가된 최근 관세를 따름.
-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서에서 중국의 속담 "보답하는 것은 예의바른 행동이다"를 언급하며, 중국 측은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의지할 것이며, 중국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논평 기간과 시행

❍ 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목록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처는 5월 15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미국 무역대표부는 목록을 작성하며 여러 미국기관의 무역분석가들이 중국의 산업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제품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해당 목록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제되었음.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각 제품에 대한 대체국가 출처를 포함한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이후 목록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고 언급함.

- 제안된 목록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순위를 가진 목록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작성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데이터에 근거하였을 때 미국 목록에 있는 일부품목들은 2017년에 미국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다른 품목들 또한 수입되지 않았을 것임.

❍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아님.

- 5월 22일까지 제출된 제안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견들은 최종 제품 목록 공개 이전에 평가될 것임.
-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이전에 지금까지 제안된 일정은 최소 2개월이며, 최대 180일임.

❍ 중국 재부무(Ministry of Finance)는 관세부과 이행 시기는 미국 정부가 언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미국의 조치 일정이 중국이 작성한 농산품 목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대두 교역

❍ 중국은 2016/17년에 3,62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약 120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며 미국산 대두 수출의 62%에 해당함.

- 미국 대두수출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2016/17년 총 대두 수입량은 9,350만 톤으로 미국은 38.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짐.

❍ 미국 대두 수출위원회가 의뢰한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두에 대한 30%의 관세가 미국 대두 생산의 17% 감소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의 71%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퍼듀 대학의 농업 경제학자 Wally Tyner는 미국 경제 복지의 연간 손실은 17억에서 33억 달러에 이르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 경제 복지 또한 감소하며, 일부분의 경우 미국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데, 이유는 대두 수입이 중국 내 경제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두 생산국으로 연간 1,300만 톤을 생산하며, 2020년까지 1,800만에서 2,00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대두 소비량은 연간 9,200만 톤이며, 수입품은 특히 중국의 거대한 돼지 산업에 효율적인 단백질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됨.

❍ USDA 관계자는 중국의 대두 수입이 2018/19년에 2017/18년의 9,700만 톤보다 증가하여 1억 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중국의 수입에 대한 높은 수요는 현재 미국의 원조 없이는 충족될 수 없음.

❍ 아직 답할 수 없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중국에 이미 판매되었으나, 추가적인 수입 관세부과가 발효될 때를 기준으로 아직 출하되지 않은 미국 상품의 운명임.

- USDA 수출데이터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으로 중국으로의 미국 대두 수출 예정량은 2,853만 7,000톤이며, 아직 267만 2,000톤은 출하되지 않았음.
- 사탕수수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445만 8,000톤으로 아직 61만 2,536톤이 출하되지 않았으며, 면화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224만 3,000만 베일로 86만 2,401베일이 출하되지 않았으며, 쇠고기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1,230톤으로 209톤이 아직 출하되지 않았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4.)

EU, 2017년 식품 사기사건 크게 증가

❍ EU 식품사기네트워크 및 행정지원협력시스템(AAC-AA and AAC-FF)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에 식품 사기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음.

❍ AAC-AA(Administrative Assistance) 및 AAC-FF(Food Fraud)는 2017년도에 식품사기와 관련된 775개의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6년도의 243개 식품 사기사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EU회원국들은 식품사기네트워크 및 행정지원협력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권한을 가진 EU회원국들이 이 시스템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심되는 식품 사기 및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다른 EU회원국들로부터 요구하고 있음.

❍ 보고서의 절반이 다음 사기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음:

- 353건의 잘못된 라벨링(2016년: 162건), 162건의 제품 대체, 희석, 첨가 및 제거(2016년: 20건), 114건의 승인받지 않은 처리 및 공정(2016년: 16건), 54건의 서류 사기(2016년: 34건)

❍ 그러나 시스템에서 교환된 사건 목록들은 EU에서 발생한 식품 사기사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

- 사실 제공된 통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식품 및 사료 긴급경고시스템(RASFF)과는 다르게 행정협조시스템(Administrative and Cooperation System, AAC)은 자발적으로 작동하며, 국경 간 비(非)준수 사건에 대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임.
- 또한 해당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반(反)사기 사건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가 조정한 사례

❍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식품위생규정 제40조(882/2004)에 따라 EU 식품 사기 네트워크(EU Food Fraud Network)에서 처리한 16건의 사기사건들을 조정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피프로닐(fipronil) 사건이나 불법적인 참치 처리 사건 등과 같은 사건들을 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EU회원국들과 제3국이 이에 관련되어 있음.

❍ 2017년간 발생한 식품 사기사건들 중 특히 피프로닐(fipronil) 사건 발생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EU 식품 사기사건을 보다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19개의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사료 긴급경고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과 공식통제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Official Control, IMSOC)에 대한 국경 간 추적(traces) 정보를 포함하여 현 EU데이터 교환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하였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3.)

일본,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 진행

❍ 일본 최대 레몬 생산지인 히로시마(広島)현의 오자키카미지마(大崎上島) 마을에서 10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임.

- 오자키카미지마 서부, 섬 중앙부 동부를 중심으로 밭이나 산림 경지를 정리하여 농업용 파이프라인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로를 정비함.

❍ 공사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9억 200만 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55%, 지방정부에서 19.5%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마을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분담할 예정임.

❍ 히로시마현산 레몬의 2015년 기준 재배면적은 206헥타르이며, 수확량은 6,350톤으로 일본 국내 생산의 63%를 차지함.

- 다만 수입량(2017년 기준 5만 500톤)과 비교하면 아직 압도적으로 적은 양임.

❍ 오쟈키카미지마산 레몬을 취급하는 삿포로 홀딩스에 따르면, 껍질째 먹는 레몬이 유행하면서 제과점 등에서 레몬껍질의 수요가 높으며, 히로시마산을 판매하는 거대 시장이 존재한다고 함. 이에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에 따른 레몬 생산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히로시마현은 2020년의 재배면적을 300헥타르, 생산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함. 현지 JA히로시마 유타카(ＪA広島ゆたか)는 레몬 묘목 구입을 지원하거나 재배 지도를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대규모 레몬단지를 거점으로 취농희망자들을 수용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루차드를 설립하였음.

- 뿌리(Root)와 과수원(Orchard)을 뜻하는 합성어로 이사 나카하라 코오타(中原幸太)씨는 큰 의지와 재미있는 발상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를 책임질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의욕을 보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 (2018.03.25.)

일본, 2018년도 원유 생산 전망

❍ 도·부·현의 낙농생산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일본 낙농유업협회(J-Milk)의 2018년도 원유생산전망에 따르면 도·부·현의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3%(약 10만 톤) 감소할 것이라고 함.

❍ 2018년도 여름철 원유수급에 노란불이 켜져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 원유생산량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

- J-Milk는 금년 원유생산량이 전체 725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임. 2세 이상의 후계소 확보에 힘쓰고 있는 북해도는 398만 톤, 101.6%로 생산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다른 도·부·현은 328만 톤, 97.1%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원유생산량의 감소는 음용우유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북해도의 원유생산량은 몇 년 전 원유전체량의 절반을 넘었으며, 그 비율은 약 55%로 더욱 높아질 전망임.
- 그러나 북해도의 원유생산량 증가량이 도·부·현의 감소량을 상쇄할 수 없음.

❍ 일본유업협회회장 미야하라 미치오(宮原道夫)는 원유·유제품은 건강지향과 기능성을 더한 제품으로 높은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함. 요구르트나 치즈를 포함하여 음용우유 수요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J-Milk 니시오케이지(西尾啓治)는 사장은 도·부·현의 원유 생산 현황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여름철 수급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 때 버터 부족이나 유제품용 가공원료유 수급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음.

❍ 특히 낙농업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원유생산이 떨어지는 반면 9월 학교 급식우유 재개로 우유수요가 높아지는 것임. 여름철 기후에 따라 제조업체에 따른 우유출고조정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7년 축산물정책가격논의에서 자민당이 '도·부·현 낙농지원에 긴급 프로젝트 팀을 설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음.

❍ 축산 클러스터 등 각종사업은 있으나 북해도는 처음 대형낙농을 상정한 것이 많음.
- 도·부·현의 소규모 가족 낙농을 위해 이번 원유생산량 감소를 해소하고 증산에 결부된 대책의 확충이 필요함.

❍ 4월부터는 지금까지의 가공원료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여 온 법을 폐지하고 원유 거래의 다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개정축산경영안정법이 시행됨.
-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유수급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짐.
- 이러한 가운데 도·부·현 낙농부양 특별대책실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자료: 일본농업신문 (2018.04.03.)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